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하천과 동화

순남이와 잉어공주

순남이가 사는 마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속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잉어랑 붕어랑 쏘가리, 피라미, 메기, 가물치 등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벌을 말합니다. 왜 천벌을 받느냐

고? 어린이들은 마을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욕심 많은 고을 사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곳 마을 사람들을 시켜 호수 속 물고기를 몽땅 잡아 바치게 명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지방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자리의 원님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또는 먹을 만한 물고기가 호수에 많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 자기 생신날이 다가오고 하여 잔치를 크게 열까 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영을 받고 호수가로 나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낚시질은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것을 말합니다.

낚시는 작은 쇠갈고리를 실 같은데 메달아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낚시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 같은 미끼를 끼워 물고기들이 덥석 물게 합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었다면 그 물고기는 낚시에 입이 걸려 빠지지 못하고 낚시꾼이 당기는 대로 매달려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본 사또는 어느 세월에 많은 물고기를 잡겠느냐 하며 핀잔을 주고 그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단번에 많이 잡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또의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배를 띄워 여기 저기 그물을 던져 잡고 했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독이 있는 풀을 뜯어오게 하여 그 풀을 찢어 호수에다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얼마 안 있어 아니나 다를까 물 위로 많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풀은 물고기들이 미끼처럼 먹으면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독초였습니다.

사또가 명령한대로 독초를 사용하고 보니 물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잡힌 물고기는 붕어, 쏘가리, 피라미 등 참 여러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커다란 잉어도 여러 마리 잡혔습니다.

잉어는 물고기 가운데 컸습니다. 몸집이 크고 하여 잡으면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물고기 중에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또도 여러 마리 잡힌 잉어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잉어고기는 보약이라고 했잖아. 저걸 회 떠서 먹든가, 탕 해서 먹어야지.’

사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또와 그 밑의 아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금시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여 호숫

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떴지만 얼마 안 가서 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한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용왕님이 노해서 저런 거야. 저 호수에는 용왕님이 산다는 말이 있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고기를 잡는 건 너무 했어. 새끼마저 죽이는 꼴이 되니 저랬다간 호수에 고기가 남았겠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낚시질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건 삼가하는 전통이 있었다.”

“글쎄 말이다.”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진 광경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또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호수 속 물고기를 싹쓸이 하다가 천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또가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호수로 나가 낚시질로 고기 잡는 것조차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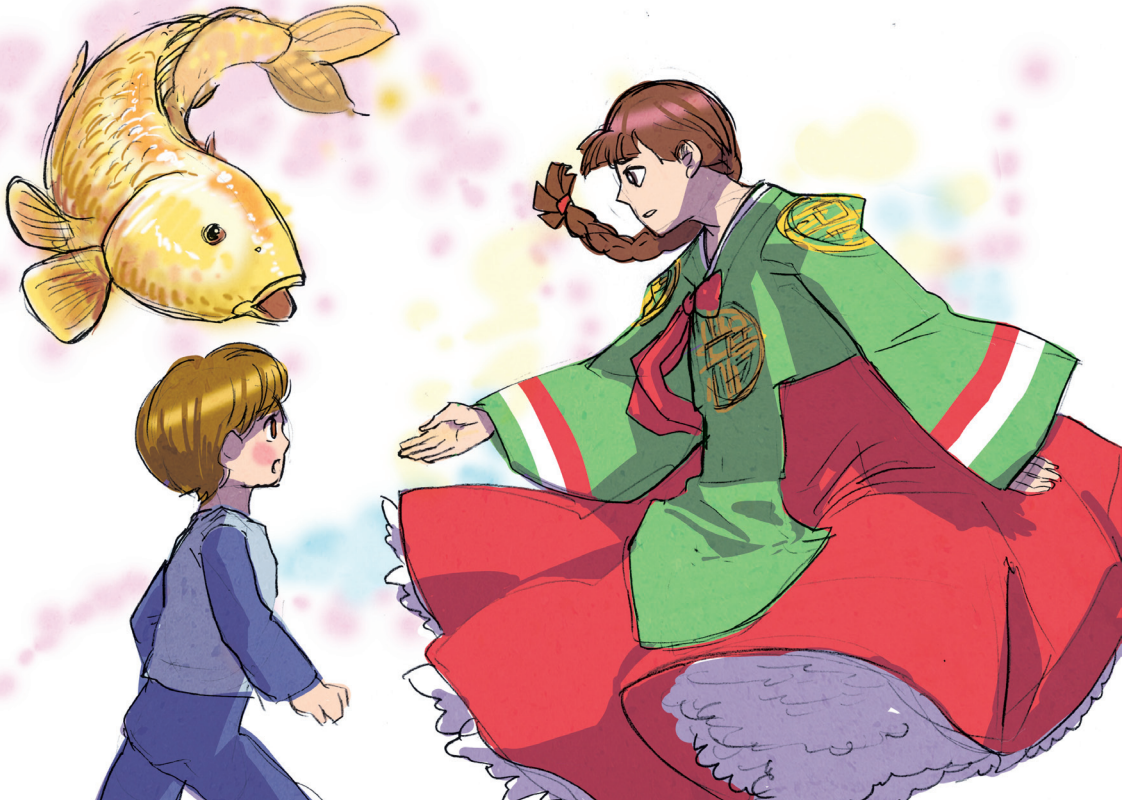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의 마을 사람들도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다 해도 많이 잡는 것을 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잡아도 많이는 못잡게 마을 사람들이 자제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가끔 호수로 나가 낚시질해서 물고기를 잡아 옵니다. 농사일을 하는 데 틈이 나면 낚시질을 해 물고기를 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모심기를 끝내고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낚시질하러 호수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잡힌 게 어린이 손바닥만한 붕어 두 마리였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낚싯대를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엇이 걸린 듯 낚싯대가 휘청했습니다. 낚싯대를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걸렸나?’

낚싯대를 치켜 올렸습니다. 낚시 바늘에 큰 물고기가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잉어였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잘 잡히지 않던 잉어가 낚인 것에 매우 흐뭇했습니다.

순남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대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남이 엄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순남이 엄마는 아기를 낳은 후 몸 조리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남이는 여자 어린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순남이는 남자아이의 이름이란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순남이에게는 언니 둘이 있습니다. 순남이 집에는 딸애들만 세 명이었습니다. 순남이를 낳을 때 순남이 아버지는 아들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데서 순남이를 남자처럼 키우려고 일부러 남자 이름같이 쓰게 한 것입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아들을 바랐던 소원은 순남이를 낳고 난 후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에 순남이의 동생으로 사내아이를 엄마가 낳은 것입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잉어를 낚았을 때 먼저 순남이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순남이 엄마의 몸보신을 위해 잡은 잉어를 꼭꼭 아 먹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잉어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몸보신을 위해 보약을 먹듯 고아먹고 하는 일이 옛부터 있었습니다.

순남이 아버지가 잉어를 잡아 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남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 온 잉어가 아름답고 예쁜 여자의 모습을 하고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잉어가 말했습니다.

“순남아 날 좀 살려 줘.”

순남이는 의아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아는가 했습니다.

잉어는 또 말을 건넸습니다.

“난 호수에 사는 공주야. 우리 아버지는 그곳 임금님이시지. 나 잡혀있는 것 알면 몹시 놀래실거다. 내일이면 난 죽을지 모른다. 응?”

순남이는 놀래듯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언니들이 푹 자고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순남이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곳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아리에 담아 놓은 잉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잉어를 내일 잡을 양으로 물 담은 항아리에다 넣어 둔 것입니다.

바깥은 달빛에 환했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순남이는 무엇에 끌리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독대로다가 가서 잉어가 담긴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잉어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순남이를 뵈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남이는 한동안 잉어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

잉어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동그란 두 눈이 순남이의 시선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남이는 잉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남이는 애처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남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껏 생각했습니다. 그 잉어는 예사로운 잉어가 아니란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남이는 용수철처럼 튀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남이는 아버지한테 달려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안돼요!”

순남이는 외치듯 말했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순남이는 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두 팔을 벌리고 “잡으면 안돼요! 저 잉어는 보통 잉어가 아니에요! 잡으면 큰 일 나요!”하고 완강하게 막았습니다.

순남이는 씩씩거렸습니다. 마치 화가 잔뜩 난 사람 같았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정말 이상하다고 순남이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잉어가 나보고 살려 달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꿈에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넌 본래 순한 애야.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안 죽이는 착한 애야. 그런데 이 잉어는 네 어미 보신용이야. 안 그래도 시장에 나가 몸보신할 걸 사 오려 했는데 잘됐지 뭐냐?”

“.....”

순남이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잉어는 옛날부터 애를 낳은 엄마한테 폭 고아 먹이는 보신용 물고기였단다. 네 어미가 네 동생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너 낳을 때와는 달랐다. 애 안 낳으려 오랫동안 앓다가 혹시나 하고 또 낳은 거야. 네 할머니 등살에 못 이겨 낳기도 했지만, 대를 잇게 되었다고 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나? 그러니 네 어미 몸보신은 꼭 시켜야 해. 애 기한테 먹일 짓이 잘 나오게 하려고 잉어고기를 잡아먹이는 거야. 알겠니?”

“그래도 안돼요. 꼭 살려 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꿈에서 그랬다고 모처럼 잡은 잉어를 살려준다는 건 말이 아니지.”

“제발 살려주세요. 잉어가 아니라도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엄만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장에 가면 돼지고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 잉어는 공주님이라고 했어요!”

“공주님?”

순남이 아버지는 공주님이란 말에 언뜻 이상한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것은 영물을 생각한 것입니다.

영물이란 신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신과 같은 무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묵은 뱀이 용이 되고, 오래된 잉어가 날개가 생겨 용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잉어도 영물?’

순남이 아버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잉어라면 독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잡아먹어서는 안 되지. 큰일이 날 일이야.’

순남이 아버지는 새삼 잉어를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잉어의 눈동자는 자기한테 뚫어지듯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등살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순남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살려주자. 도로 호수에 놓아주자.”

순남이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놓아주고 올게요.”

“그래라.”

순남이 아버지는 잉어를 물통에다 담아 순남이에게 주었습니다. 순남이는 얼른 받아 호수가로 달려갔습니다. 잉어는 물통 속에서 퍼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뻐서 날 뛰는 것 같았습니다.

잉어를 호수로 돌려 보내고 나서 그날 밤에 순남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 잉어가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었었습니다.

잉어는 말했습니다.

“오늘 널 데리고 내가 사는 궁궐에 갈까하여 왔어. 아버지

가 널 데려 오라고 하셨어.”

순남이는 꿈속이지만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이 아닌 현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남이는 잉어가 가는데로 따라 갔습니다. 호수에 와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땅 위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물위로 걷는 게 마치 폭신평신했던 솜이불을 밟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수 가운데 즙 와서는 함께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문 앞에 들은 서 있었습니다.

잉어공주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궁궐은 눈이 부셨습니다. 온통 우윳빛 같은 산호로 지어진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순남이는 매우 탄복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에 있는 걸 가져다가 지은 거야.”

이때 어린 가물치가 다가왔습니다.

“공주님. 어디 다녀오세요?”

가물치는 순남이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다녀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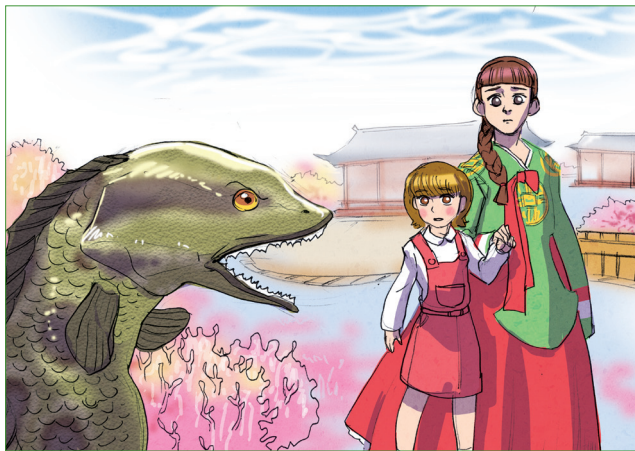
“거긴 왜요?”

어린 가물치는 못마땅한 낫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날 구해준 친구를 데려왔지. 우리 궁궐 구경시키려고 말이야.”

“사람들은 나쁘잖아요? 우릴 잡아먹는 나쁜 사람들인데 왜 데려 왔어요? 더욱이 공주님과 우리 가물치는 저 애들의 엄마들이 주로 잡아먹는다는데요? 무섭지 않아요?”

순남이는 엄마가 동생을 낳고 가물치 고기를 미꾸라지처럼 고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가물치가



화내서 말하는 것에도 언짢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해.”

순남이는 어린 가물치한테 엄마 대신에 사과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생들을 낳으러 물가에 나갔다가 잡혀 죽은 거야.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

어린 가물치는 순남이의 사과에도 싫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순남이는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을 낳았을 때 엄마가 먹은 게 저 어린 가물치의 엄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순남이는 더욱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잉어공주는 어린 가물치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는 참 이상해. 왜 아기를 낳을 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물가로 나가는 거야? 그 때문에 쉽게 잡혀 죽는게 아니냐?”

“글쎄 말이예요. 애들 안 낳을 때는 언제나 깊은 바닥에만 있고 했는데 말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아 일어난 일을 누구한테 원망하겠니? 나도 그랬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것인데, 여기 마음 착한 순남이가 살려 주었어.”

어린 가물치는 더 이상 순남이를 언짢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궁궐을 구경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아빠 임금님과 엄마를 소개해 줄게.”

순남이는 화려한 잉어공주의 집을 구경한 후 잉어공주가 불러서 오게 한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북이는 호숫가까지 태워주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순남이는 꿈을 꿴습니다.

‘참 이상하다...’

순남이는 꿈이 실제 생생한 현실 같았는데 놀라운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작은 언니랑 호수가로 놀러 나왔습니다. 언니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자전거를 끌고 나간 것입니다.

호숫가는 독길이 있었습니다. 그 독길 좌우로는 우거진 갈대숲과 이런저런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남이는 들꽃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니는 독길 따라 시원하게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순남이가 한 곳에서 노는 동안 언니는 독길 따라 멀리 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한 바퀴 돌아오는 가까운 독길 쪽에서 어린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에 빠졌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남이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자전거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길 경사진데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 왔습니다.

순남이는 언니가 타던 자전거란 것을 언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순남이는 자전거가 있는 곳에 왔을 때 자전거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언니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여 허우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건져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린이들뿐이어서 그랬습니다.

순남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까지 달려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려면 늦어질 것 같아 혹시 주변에 어른들이 있지 않나 둘러 본 것입니다. 마치 좀 떨어진 호숫가에서 낚시질하는 어른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남이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사람 살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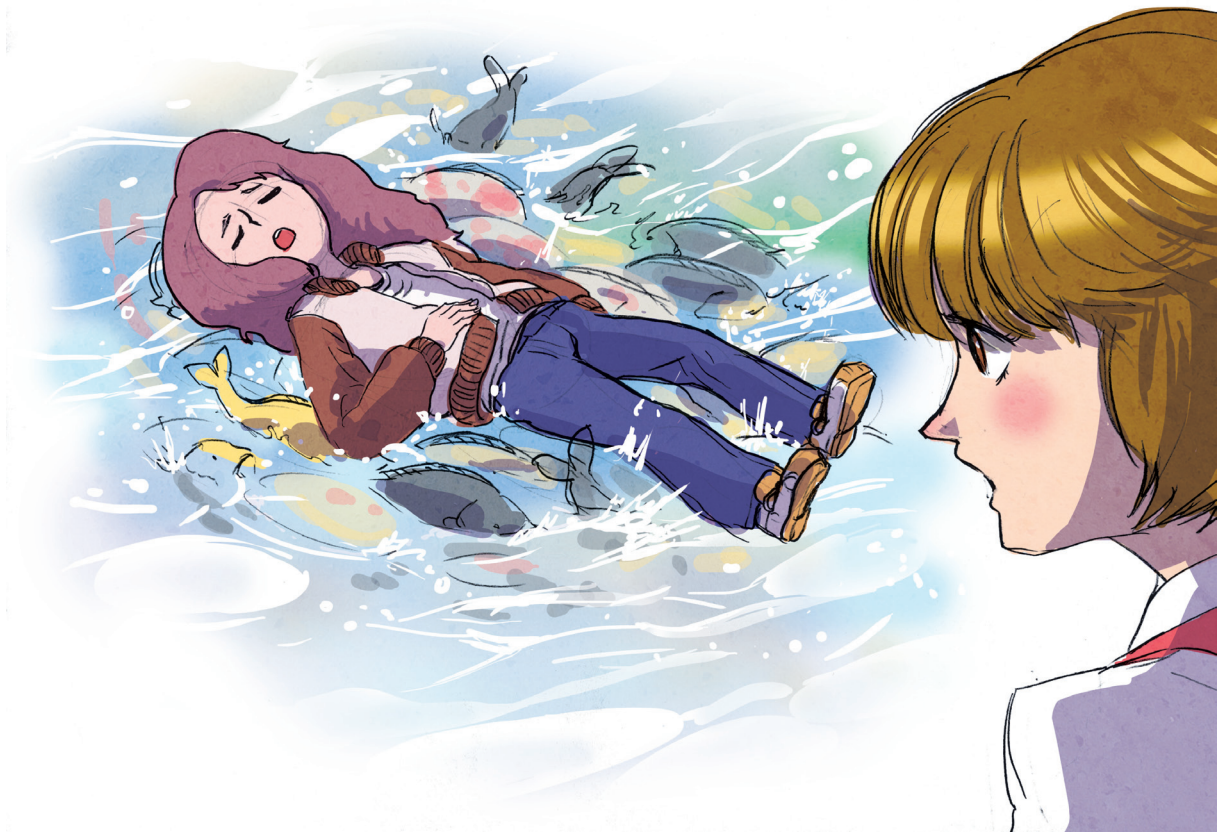
낚시꾼은 순남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우리 언니가 빠졌어요. 어서 가서 건져주세요!”

순남이가 숨 가쁘게 말하자 그 낚시꾼은 낚시대를 거둬두고 순남이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허우적거리는 언니가 물속에 잠겼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순남이는 놀랐습니다.



“보이지 않지 않나?”
 낚시꾼은 말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어린이가 “엇!”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어린이는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저기 봐! 물에 떠다!”
 순남이 언니가 물 위에 뜬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떠 있는 그 모습이 뒤로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자세였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떠 있는 것인가?’ 낚시꾼은 의아해 하며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물 위에 등 붙이고 누워 있는 게 호수가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물결에 밀려 물가로 나오듯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순남이 언니가 등을 물 수면에 붙이고 헤엄쳐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광경이 독 가까이 다가 왔을 때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잉어들이 순남이 언니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여러 마리가 떼 지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로 밀고 온 것이었습니다.
 낚시꾼은 독 아래로 내려가 순남이 언니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남이 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병병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잉어 한마리가 갑자기 수면 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남이는 “안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잉어공주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잉어공주가 언니를 구해주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잉어공주님!”하고 순남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잉어공주는 다시 한번 물 위로 치솟고는 사라졌습니다. 산호로 지은 궁궐로 돌아간 것입니다.
 잉어공주는 마음 착한 순남이에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